



스님과 함께 경전 읽으니 마음에 쏙옥~

스님들이 푼 경전해설서 3권 잇따라 출간

선가귀감 일장 스님 역음 | 불광출판사 | 8천원
산스크리트본 금강경 공부 성열 스님 역음 | 현암사 | 1만8천원
핵심 대반야경 남산 스님 역음 | 휴먼&북스 | 1만원

자신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찾아가는 길에 등불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선지식과 양서(良書)일 것이다. 최근 <금강경>과 <반야경> <선가귀감> 등 수행의 길과 방법을 제시해주는 대표적인 경전들을 새롭게 번역한 책들이 잇따라 출간됐다. '경전'이라고 하면 어려운 한자투성이의 책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스님들이 한 번 곱씹어 풀어주는 해설서를 읽다보면 경전을 읽는 것이 그리 어렵고 힘든 길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산 황매암에서 수행정진 중인 일장 스님이 <선가귀감>의 '언해본'과 '한문 교재본'을 엮어 펴낸 책이 눈에 띈다. <선가귀감>은 조선 중기의 고승 휴정 스님이 후학들에게 수행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 50여 종류의 경론과 조사 어록에서 요점만을 간추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곁들인 책이다. <선가귀감>은 교화와 선수행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라는 일장 스님은 "여러 가지 번역본이 나와 있지만, 이번 책은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꾸었다"고 말한다.

<선가귀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해설과 부후 선사(1543~1615) 언해본을 현대문 문제에 맞게 풀이 실었고, 뒤에는 교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양사판 한문본을 가로쓰기 체제로 편집했다. 한문 교재본 중간에 실린 주해(註解)는 스승인 동산 스님이 손수 기록해 놓은 것을 다시 정리한 것. 부록으로는 화두선의 방법과 지침을 일러주는 <선종결의집>을 번역해 덧붙였다.

사이에 널리 읽히고 있는 한역본이 아닌 592년 달마급다가 번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저본(底本)으로 삼았다. 30여년간 한역 <금강경>을 읽고 강설하며 느꼈던 미진한 점을 '원전'인 산스크리트본을 읽어 몸소 참 뜻을 새겼던 경험을 책으로 풀어낸 것이다.

트어 표기용례와 원문, 한글 풀이, 단어 해석과 문법해설 등을 덧붙였다. 산스크리트 문법책을 읽어가며 단어 하나를 이해하는 데 며칠씩 걸리는 어려움을 극복한 결과물이라 일반인들에게 쉽게 읽히지 않지만 한역본과는 다른 시각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애들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지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오은석 역음 | 이종삼 그림
우리아이들 | 각각 8천원



우리출판사가 어린이 불서를 전문적으로 펴내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 '우리아이들'이 첫 결과물을 선보였다. 이번 출간된 '신경림 선사님이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지혜·나눔' 시리즈는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인 <자타카>에서 가려 뽑은 우화들 만화와 글로 엮은 책이다. 신경림 시인이 직접 <자타카>에서 선별한 내용을 동화작가 오은석씨가 아이들이 읽기 쉬운 글로 다듬고 이종삼씨가 그림으로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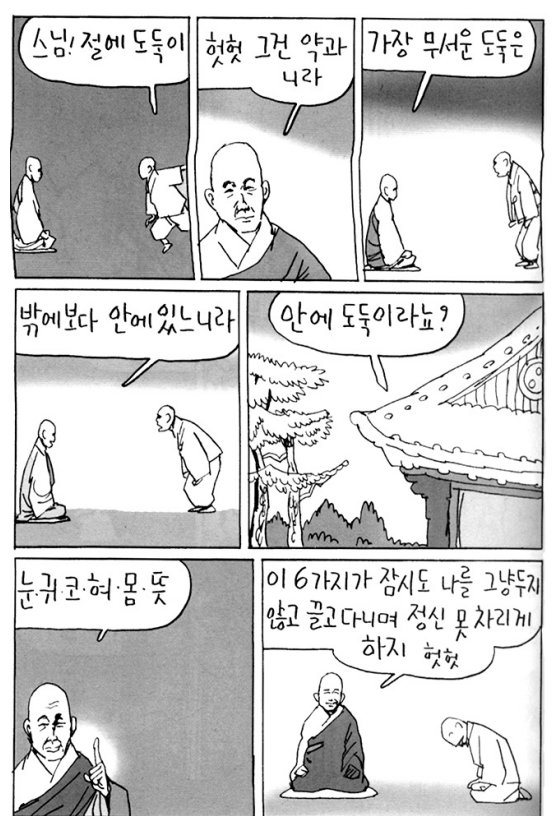
하기 위해 비유하여 이야기한 설화 모음집'이라며 "인내와 노력, 나눔과 화합 등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지혜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선지식 52인의 번뜩이는 지혜와 만나다

본지 연재중인 禪만화 '주장자 따라' 묶어

웃다가 울다가 울다가 웃다가
조태호 역음 · 그림 | 맑은소리 | 9천8백원

만화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가장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법문이라고 하면 웬지 경건한 분위기에서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만화 법문'이라는 소재가 가벼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텅 빈 종이 위에 몇 개의 선(線)만으로 이루어진 조태호 화백의 선(禪)만화는 그 어떤 법문이라도 담아낼 수 있을 만큼 넉넉하다.



본지에 '주장자 따라'를 연재하고 있는 조태호 화백은 15년간 경제 만평 전문가로 일하다 은퇴 후 '선(禪) 만화'의 길을 걷게 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일간지 만평 전문가답게 그의 만화는 간단명료하면서도 한 번 더 내용을 반추해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느껴진다.

변산 내소사에서 만허경화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봉수 스님 (1901~1974)의 일화를 만화로 옮겼다.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번역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캐성(箕城快香)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럽려 조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이름다운 송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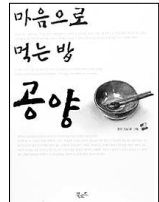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행(苦行)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법보 사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송고한 신심을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책의 제목인 '웃다가 울다가 울다가 웃다가'는 추담 스님 (1898~1978)이 법문을 해답하는 신도의 청에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며 인생의 이치를 일러준 일화에서 따 왔다.

새로운 책

■ **<마음으로 먹는 밥 공양>**(호산 스님 글/그림, 북로드, 1만원)=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한 그릇의 밥이나 친구들과 어울려 먹던 도시락, 산사에서 낚신 격식에 따라 먹던 발우공양 등 누구나 '밥'에 얽힌 추억 한 가지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서울 흑석동 달마사를 도심 문화 수행도장으로 일군 호산 스님(달마사 주지)은 밥과 수행을 주제로 한 글과 직접 그린 수채화를 엮어 <마음으로 먹는 밥 공양>으로 펴냈다. 스님은 공양(供養)이 단순히 밥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물건이나 참다운 진리의 가르침을 베풀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출간하지 얼마 되지 않아 산문 밖에서 물레 자장면으로 먹고 왔다가 참회의 집을 했던 기억이나 빈털터리 선배가 밥 한 끼 대접하겠다며 낮모르는 이의 장례식장에 데려가 밥을 권했던 일 등 밥에 얽힌 소박한 '사람 사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호산 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했으며 월간 <해인> 편집위원과 출판부장, 고려대장경연구소 보존부장 및 기획실장을 역임했다.

■ **<삼 잘되게 하기>**(오심 스님, 부다가야, 9천원)=2002년 부산불교방송 '생활 속의 부처님 말씀'을 진행한 오심 스님이 방송에서 했던 생활 법문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번쯤 되새겨볼만한 일화와 법문 구절을 원고지 5~6매의 길지 않은 글로 풀어내고 있다. 오심 스님은 해인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했으며 현재 울산시립유원장과 월봉사 주지, 불미니유치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 **<달고 싶은 부처님>**(이수현 글, 서선미 그림, 가교출판, 8천원)=아이들에게 불교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들려주는 것이다. <달고 싶은 부처님>은 인류의 영원한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부터 출가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전한다. 도법 스님(실상사 前 주지)은 주천사에서 '부처님은 자유와 평화, 평등을 향한 인류의 염원을 삼으로 보여주셨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안겨줄 최고의 선물은 부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파헤치다!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와 과학도 밝혀주지 못하는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주는 환단고기. 건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문제원 선사님께서 평안중시의 인목으로 바로보았다.

미륵은 진정 우리 곁에 있는가



일곱 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이 책이 던지는 여덟 가지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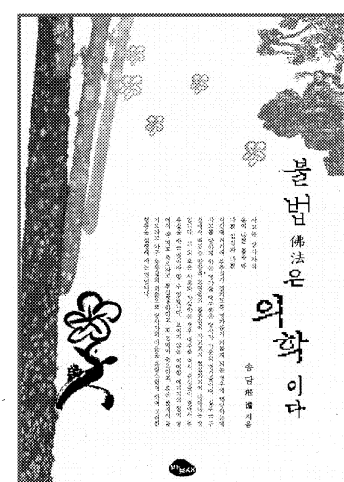
- 1 아함경에서 말하는 **인수** 뿐만 사천 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 2 소승경전의 **무상성**과 대승경전의 **형상성**은 어떠한 관계인가?
- 3 12연기법의 **무명**과 대승불교의 **광명사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4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은 **중생이 부처되는 교설**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 5 화엄경의 세계는 **실세계**인가? 아니면 **상상의 세계**인가?
- 6 주역에서 말하는 **선천·후천의 개혁사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은 무엇인가?
- 7 **극락세계**는 진정고 서방세계에 있는가?
- 8 최근에 **지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여덟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미륵불은 한 사람이 성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6불과 당시 스스로를 포함하여 현재 7불의 본말을 밝혔듯이, 미륵이 오실 때 7불의 처음과 끝을 밝힌다고 하시는 까닭에 미륵불은 6명의 도통을 이어서 7번째로 완성하심을 스스로 밝혀가 되어 있다. 이제 일곱 분의 도통 원과 의의를 밝히며 비로소 드러나는 진眞 대승불교의 일불승 사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구입문의 : 해조음 053) 624-5586 / 정토사 053) 622-0333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불법 佛法은 의학이다
송담 滋潭 지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라도
- 남양주 봉선사 월운 조실 스님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한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 문의 - 법화사(02) 2612-3358